문광부, 다음달 26일까지 '이야기 할머니' 700명 모집

"동심 보듬어주는 '할머니표' 이야기 들려주세요"

유치원 등 선현들 미담 재밌게 풀어내…광주·전남 지난해 164명 참여
전남도립도서관, 2월 23일까지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20명 모집

몇 해전 '노인은, 위대한 스토리텔러다'라는 공익 광고 문구가 유행했다. 광고와 함께 실버 세대들이 살아온 길을 구술하는 실버톡 콘서트와 전시회가 열리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소박한 이야기들도 지난 세월의 연륜이 쌓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을 통해 들으면 감동이 배가 됐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현재의 노·장년 세대들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어린 시절 우리네 할머니들은 손자·손녀들을 무릎에 눕히고 매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할머니들의 이 같은 '무릎 교육'을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되살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700명을 오는 2월2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09년 30명의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 출발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세대를 뛰어넘는 정서적 교감과 교육적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2100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전국 6000여곳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난해는 1493명의 할머니들이 1만1946곳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64명의 할머니들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우리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으로, 고령화시대 노인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정립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노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에는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핵가족화로 가정의 전통적인 인성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 할머니'가 전해주는 선현의 미담과 귀감이 되는 옛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평가받고 있다.

대상은 만 56세에서 만 70세까지의 여성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야기 할머니'는 2박3일 과정의 신규교육(한국국학진흥원)과 7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후 내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의 080-751-0700.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참여한 유영희씨는 "일년 동안 아이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더 큰 추억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도서관(관장 민상기)도 20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를 20명을 모집한다.

할머니들을 통해 '의향·예향·미향 전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들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도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책책빵빵' 이동도서관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소외지역의 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준다.

대상은 만 56세에서 만 70세까지의 여성으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 선발되면 기본 양성교육인 '이야기활동 전문가' 과정 30시간과 월별 심화교육을 이수한 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할머니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원된다.

민상기 관장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의향(義鄕), 예향(藝鄕), 미향(味鄕) 삼향(三鄕)의 고장 전남의 이야기와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어르신은 자기 발전과 성취감을 맛보고, 어린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288-523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개량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이야기 할머니 유영희·향희씨 자매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원불교 100년의 자취

광주·전남교구 서문성 주임교무 책 펴내

올해는 원불교가 개교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월불교 100년을 맞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산수교당 서문성 주임교무가 '서문성 교무의 10장면으로 본 원불교 100년'(원불교출판사)을 펴냈다.

서문 교무는 이 책에서 지난 1세기 동안 원불교가 걸어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재조명한다.

책에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삶을 비롯해 원불교 100년의 굵직한 족적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이 책은 제1장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후 회상을 열다', 제2장 '하늘에 기도를 올려 진리계의 인증을 받다'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제10장 '개교 100년을 맞이하다'에서 서문 교무는 "원불교 1세기를 마감하고 2세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원불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갈림길이고, 제2의 창교로 거듭날 시점"이라며 "ㄱ, ㄴ부터 다시 탑을 쌓는 원기 100년이길…"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

빛가람에서 '클래식 여행'

21일 광주시향·한전 신년음악회

클라라 주미강

나주 시민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가족을 위한 '빛가람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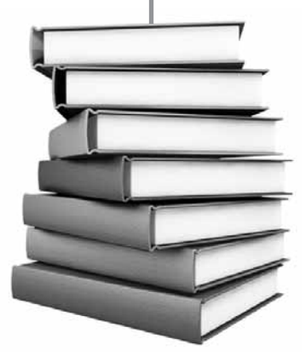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나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공연하는 이번 무대의 지휘봉은 김영언 상임부지휘자가 잡는다.

첫곡은 각국 신년음악회 인기 레퍼토리로 김연아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 많은 사랑을 받은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이다.

이어 떠오르는 클래식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한다.

피날레 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다. 잉글리쉬 호른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2악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4악장 등 클래식 팬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지역협력형사업 설명회 오늘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19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2015년 지역협력형사업 제2차 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총 25억8400만원이 지원되는 2015년 지역협력형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역특화문화거점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과 사업 신청 방법,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총지원금은 2억3000만원, 프로그램별 4000만~6000만원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협력형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19일까지 접수받으며, 그 외 사업은 20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 : //www.n→cas.or.kr)을 통해 접수받는다. 문의 062-670-7442. /오광록기자 kroh@